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1)

유영구 / 중앙일보사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이전에 7차 당대회를 열어 김정일비서(국방위원장)를 당총비서로 추대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9월 하순이나 늦어도 10월초에는 당대회가 열릴 전망이다. 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김정일시대의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중앙위원회 구성작업(정위원·후보위원 선정)을 하고 있으며, 지방간부·중간간부의 불갈이를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중앙위는 신진간부를 대거 기용하면서도 원로들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배합'의 방향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 및 당중앙위의 재구성 여부를 앞둔 과도기에 지도부의 내막을 파악하는 지름길은 권부의 핵심 당정치국의 정위원·후보위원의 이력을 검토하는 일이다.

정치국 정위원은 김정일을 제외하면 10명인데 이들의 보직은 각각 다르다. 강성산은 정부

원 총리, 이종욱·박성철·김영주는 부주석, 김영남은 정부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최광은 군 총참모장·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민무력부장은 오진우 사망후 공석), 계용태·전병호·한성룡은 당비서(각기 공안·군수·경제정책 담당), 서윤석은 지방당 책임비서 등을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이번호에는 강성산~김영남까지 5명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강성산

김일성의 정치적 후광에 힘입어 경제태스크포스 크래트로 성장해 온 강성산총리는 김정일이 정치적으로 부상한 70년대 중반 이래 정부원에서 경제를 관장해 왔다. 한국으로 귀순해온 강총리의 사위 강명도씨에 따르면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김정일에게도 바른 말을 하는 몇 안되는 인물'이라고 한다. 김정일도 그의 강직한 성격 때문에 기쁨조 파티 따위에는 초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일성의 이종사촌으로 알려진 강성산은 1931년 3월 3일 청진시 경성군에서 태어났다(『인민일보』 1984. 8. 5). 그의 아버지 강위련은 연변 화룡현 출신으로 김일성부대의 기관총사수로 항일부장투쟁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 김일성은 해방직후 수소분 끝에 강위련의 아들을 찾아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에 입학시켰다고 한다.

한국전쟁시기에는 만경대학원의 다른 1~2기생들과 함께 김일성 진위중대에서 활동하면서 일찍부터 김일성 주위에서 맴돌았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체코 프라하공대에서 유학까지 한 엘리트로 원로그룹과는 달리 개방파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강성산은 김정일측근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북한 권력투쟁사를 얼룩지게 한 '반종파투쟁'(1956년 연안파, 1959~60년 소련파, 1967년 갑산파, 1969~70년 군부강경파)때마다 김일성에 충성을 다했다. 물론 김정일의 후계자옹립에도 앞장섰다.

그는 1970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평양시당 책임자로 발탁된 빨치산 2세의 선두주자이다. 핵심당료로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던 그가 경제전문가로 자리를 옮긴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이다.

1974년 6월에 열린 평양시당 전원회의가 계기였다. 이 회의는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의 동생인 김성갑(당시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의 '평양시당 조직비서 시절의 비리'가 폭로된 자리

였다. 김성애 측근들은 회의 직후에 권력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성산은 시당 책임비서로 전원회의를 이끌었지만 이들의 비리를 당중앙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나는 비운을 맞는다.

그러나 김일성은 강성산을 저버릴 생각이 없었다. 책임추궁을 하면서도 슬쩍 다른 자리로 배치해 그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이 무렵 일시적으로 제2경제위원회 정치국장에 재임했다는 관측도 있다).

강성산은 1977년 9월 정부원 부총리로 발탁된 뒤 정부원의 중추신경으로 자리잡음으로써 1974~75년간의 정치적 좌절을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강명도씨에 따르면 강성산은 북한에서 '안해본 것이 없는 사람'으로 통한다고 한다. 그만큼 능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다.

강성산이 대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부상한 것은 10여년이 지난 198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 7기 3차회의였다. 그가 제1부총리 자격으로 「남남협력과 대외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무역활동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하고 같은 회의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이다. 그의 보고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 적극화'를 주장한 이례적인 것이었다.

강성산이 총리로 부상한 뒤 북한이 중국 경제특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연이은 주요 간부들의 중국 시찰 끝에 북한은 1984년 9월에 처음으로 합영법을 채택, 시행에 들어갔다.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

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도 같은 해에 마련됐다. 그해 12월에는 정부원에 대외경제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사실이 판명됐다.

그러나 강성산은 1986년 12월에 갑자기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비서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후임 이근모). 이를 둘러싸고 김일성이 성급한 경제개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에서부터 중공업노선으로의 복귀, 북한의 소련접근에 따른 친중과의 실각 등 추측이 꼬리를 물었다. 그는 총리해임 후에도 정치국원·비서로 계속 정치활동을 했고 당내서열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다.

강성산은 1988년 3월에 함북도당 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지방사업에 매달렸다. 1991년에 표면화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에도 함북책임자인 강성산이 간여했다는 관측이 있다. 그가 1990년 5월 9일~21일에 당대표단장 자격으로 북경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지방을 돌아본 것도 대외개방의 준비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2년 9월 4일 김일성은 갑자기 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했다. 김일성은 회의 결론에서 “함북에서 최근 수년간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된 것에 큰 만족의 뜻”을 표명했다고 한다. 강성산의 행정경제 능력을 칭찬한 것이다.

그 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992년 10월 5일자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기업법을

채택, 자유경제무역지구에 100%외자기업도 허가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강성산은 1992년 12월에 총리에 재기용됐는데 처음 총리직을 맡은 1984년이 2차 7개년계획의 최종년도였고 재기용 역시 3차 7개년계획의 최종년도(1993년)를 앞둔 시점이라는데서 그에 대한 김일성의 신임을 엿볼 수 있다. 그는 1984년에 2차 7개년계획을 마무리한 뒤 3차 7개년계획(1987~93년)이 시작되기 전의 조정기(2년간)에 총리직을 맡았고 지금도 경제조정기(1994~96년)에 총리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 정치국 위원들 가운데 개방색채가 가장 뚜렷한 강성산은 사위의 망명으로 인한 부담과 심한 당뇨병으로 인해 총리직에서는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시대의 새 출범을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김일성 사망후 그의 활동이 뜸한 것도 그런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일성 사망후 강성산의 정치활동은 1995년 2월에 쿠바경제대표단을 접견한 것과 4월에 제 13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 개막식에서 축하연설을 한 것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보다 최근에는 6월 19일 김정일의 당사업시작 31주년기념 중앙보고대회에 총리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정일로서는 국가경제 전반을 다스려 본 강성산의 실무능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고 정치화합의 상징성도 고려하게 될 것 같다. 때문에 강성산은 앞으로 당정치국 위원 자리는 그

대로 가진 채 다른 보직을 맡지 않거나 중앙당 비서, 도당책임비서 등 약간 가벼운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활동은 줄어들면서도 정치국 상부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김정일이 강성산과의 유대를 유지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종옥

이종옥부주석은 함북 성진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그곳에서 보통학교를 나온 뒤 함흥 영흥중학교를 다녔다(1918년생 설과 1991년생 설 두가지가 있다). 중학 졸업후에는 일본대학 전문부를 거쳐 만주 하얼빈공대 공학부를 졸업했다. 그 뒤 일본인회사인 성진제철회사 기술자로 일하다가 해방 직전인 1994년에 그만두었다.

해방 이후 성진(현 김책시)에서 공산당조직에 참가했고 성진제강소 지사장, 지배인으로 일했다. 그가 북한 정권기관에 참여한 것은 1949년이다. 첫 직책은 내각 산업성의 중공업 국장이었고 1950년 초에는 곧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공업부장이 되었다.

그가 김일성에게 신임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시 군수품생산과 전후 중공업 복구건설에서의 공로 때문이다. 김일성과 이종옥사이의 튼튼한 유대가 맺어진 것은 1950년대의 중공업 정책을 둘러싼 당내 갈등때였다.

당시 정일형과 김두삼(여순공대·하얼빈공

대 출신의 부수상급 인물)이 김일성의 중공업, 군수공업 치중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종옥이 이들을 반대분자로 보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이종옥은 또 소련파인 박의환, 당부위원장 박창옥이 소련의 과학기술만 내세우는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민족과학기술 발전과 자립경제 노선을 따라 친김일성의 길을 걸었다.

김일성은 이종옥의 정책성행과 과학기술지식,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해 그를 중공업부문 보좌역으로 곁에 두게 된다. 이종옥은 전문관료로 여러 핵심지위를 거쳤다. 당중앙위 중공업담당 부위원장(1957년), 내각 부수상 겸 국가계획위원장(1958년), 부수상 겸 중공업위원장(1960년), 부수상 겸 금속화학공업상(1962년), 과학원장(1965년) 등이 그가 거친 자리다.

이종옥은 1967년에 내각 부수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1968년 4월쯤 김일성이 제시한 경제관리 이론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가 철직당하는 정치적 비운을 맞는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17차 전원회의 결정을 토의하는 정치위원회 자리에서였다. 그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반대한 반대분자로 호되게 비판받고 6개월간 자기비판을 한 뒤에 철직당하였다.

함북 어느 지방의 광산 지배인으로 쫓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후된 광산을 3~4년만에 일급광산으로 끌어올리는 모범을 보인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도 거듭 확

인되어 재기의 길을 걷게 된다.

그가 내각에 복귀한 것은 1972년 중순이었다. 이미 한번 거쳐간 중공업위원장 자리였다. 1972년에 재기하면서 다시 김일성의 보좌역이 됐다. 그뒤엔 별탈없이 승진가도를 달려 1976년에 정무원 부총리, 1977년 12월에 총리(제5차 정무원)가 되었다. 1984년에 국가부주석이 되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1968년 4월 내각 부수상에서 철직되면서 당 정치위원회에서 물러났던 그가 당 정치위원회에 후보위원으로 부분 복귀한 것은 1973년 6월이고 정치위원으로 완전복귀한 것은 1976년 말이다. 정치위원회 상무위원 숫자를 늘렸던 1977년말에 그는 상무위원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1980년의 6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종옥은 김정일과는 깊은 인연이 없는 김일성의 경제브레인이었다. 김정일시대를 맞으면서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외교활동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문을 보다 젊은 김정일의 경제브레인들에게 일이 넘어갔다.

최근 김정일이 국가부주석에 취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의 대표단을 접견하는 활동은 이종옥과 박성철이 나눠 맡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2월에는 브라질 10월 8일 혁명운동대표단, 4월에는 중국 라디오·TV 대표단, 5월에는 라오스 민족회의대표단과 캄보디아 인민대표단 및 쿠바 공산주의청년동맹 대표단 등을 각각 접견했다. 그러나 이종옥도

김정일을 떠받드는 행사에는 얼굴을 내민다. 6월 19일 김정일의 당사업시작 31주년기념 중앙보고대회에 부주석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그 예다.

박성철

항일빨치산 출신의 원로정치인 박성철부주석은 1912년 함북 길주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다니던 중 부모를 따라 만주로 이주했다. 용정의 대성중학을 다닐 때 반일운동에 가담해 중퇴하게 된다.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상지대학 전문부 야간에 다니다가 공산주의서클에 가담한 혐의로 일경에 체포됨으로써 학업을 포기했다.

박성철은 1935년에 용정으로 돌아와 대성중학 시절 반일운동을 함께 한 박덕삼(김일), 임춘추 등 동창들과 만나 반일운동을 재개했다. 팔도구광산의 노동자들과 반일투쟁을 하던 중 다이내마이트 폭약을 김일성부대에 공급한 인연으로 1936년초에 김일성을 만났고 그뒤 부하로 따라 다니다 해방 뒤 입북했다.

박성철은 김일성 집권과정에서 충실한 보좌역이었다. 평양학원 부원장, 보안간부훈련소 부소장, 38경비대 연대장을 거쳐 1948년 2월의 인민군창설 때는 인민군 사령부 참모로 임명됐다. 이같은 경력은 그가 현지도층에서 가장 원로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1956년에 국제부 부부장으로 당중앙위

에 들어가면서 권력서클에 진입한다. 1957년초에는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내각쪽에서는 외교부 제1부부장을 거쳐 1959년에 외교부장이 된다. 당 국제부장이 된 것은 1964년이다. 이 과정을 거쳐 박성철은 외교 1인자가 되었다.

박성철은 외교경력을 바탕으로 승진가도를 달려왔다. 1966년부터 당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권력의 핵심직위에 포진되고 정부에서 내각 제2부수상(1966년), 정무원 부총리(1972년), 인민봉사위원회 위원장(1974년, 일시강직), 정무원 총리(1976년), 국가부주석(1977년 11월 6차내각)을 두루 역임했으며 지금도 당정치국 위원이자 국가부주석이다.

그의 정치적 불운은 부인의 부정사건과 관련된다. 1974년 초에 부인이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바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정치위원과 부총리에서 후보위원, 인민봉사위원장으로 강직되어 1년반 동안 고통의 날을 보냈다. 그는 일제때 결혼한 본처와 2남이 있었지만 해방후 이혼했으므로 부정사건에 연루된 여자는 비서출신이던 두번째 부인이었다. 그러나 부인 탓만 할 수 없다. 그 역시 여자를 밝혀 권부의 두통거리였기 때문이다.

박성철은 1975년말에야 정치위원, 정무원 부총리로 복귀했고 1976년 4월에는 정무원 총리로 부상했다. 재부상은 1년반 동안의 좌천기간에 인민봉사위원회 사업을 맡아 일대혁신을 일으킨 데 힘입은 것이다.

그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및 노동당의 유

일적 지도체계 구축에 있어서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그는 반대파를 숙청하며 김일성과 생사고락을 같이해 왔다. 김정일 후계체계 확립에도 가담해 왔지만 수년전부터 김정일의 눈 밖에 나 이종옥보다 서열이 밀리게 됐다. 원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은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성철의 정치활동도 이종옥과 마찬가지로 외교에 국한되고 있다. 1994년 8월에 리비아혁명 25주년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리비아를 방문한 것 외는 평양에서 여러차례 외국대표단을 접견하는 것이 정치활동의 거의 전부였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에 쿠바 외무상, 3월에 중국 광명일보대표단, 4월에 안호상 대종교 총전교, 5월에 잠비아공화국 대표단 등과 만났다. 그밖에 4월에 평양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개막식에 참가했다.

김영주

1922년생인 김영주는 김일성의 친동생으로 일찍부터 정치적 후광을 입어 정계에 일찍 입문했다가 1975년에 은퇴한 특이한 경우이다. 20여년의 정치공백기 끝에 지금 국가부주석을 맡고 있지만 늙고 병들어 정치활동은 뜸한 편이다.

1967년 5월에 박금철·이효순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40대 중반의 김영주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빨치산지도부가 비밀리에 '김일성-김영주-다음세대'로 후계구도를 잡고 있었

기 때문이다.

1961년 9월 4차당대회 이래 당 조직지도부장이던 김영주는 1960년대에 당권을 휘두른 막강 실세였다. 특히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 직후의 제4기 14차 중앙위 전원회의때 권력기구가 변하면서 당 위원장·부위원장제가 폐지되고 비서국이 설치되면서 김영주는 더욱 부상했다. 당권이 이미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에게 몰리던 판에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겸 당비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당내 공기가 김영주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자 박금철 그룹은 그냥 있지 않았다. 1967년 3월부터 김영주 비판에 공공연히 나서다가 5월의 전원회의에서 박금철 그룹은 쫓겨나는 패배를 맛보았다.

박금철 그룹의 '당권도전'사건 여파가 진정된 것은 1967년말이었다. 박금철·이효순사건이 진정되자 노동당은 '김일성-김영주-다음세대' 후계구도가 관철되는 듯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때만 해도 '김정일 후계문제'는 논의되기 전이었다.

박·이사건 뒤 반년도 지나기 전에 노동당내에서 후계구도를 둘러싼 새 도전이 터져나왔다. 이번엔 빨치산그룹내의 '군사파'였다. 1968년 중반부터 군부지도자인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등이 김영주에 반대해 나섰다.

이들은 박·이사건 이후 당권이 더욱 김영주에게 집중되는 데 반발했다. 김영주의 과거 경

력을 문제삼아 김영주의 지시인 '당적 지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저항했다. 이들은 1969년 1월의 노동당 인민군위원회 제4기 4차 확대 전원회의에서 숙청됐다.

후계문제를 둘러싼 1967~69년간의 심각한 진통은 후계자로 내정된 김영주에 문제가 있었던 탓이다. 능력과 건강 때문이었다.

김영주는 성격이 원만해 대중적인 신망이 있었으나 정치안목이 부족했다고 한다. 조직지도부장으로 일하면서 좌경으로 흘렀다는 증언도 있다. 이블테면 성분 제일주의에 빠져 능력있는 간부라도 성분위주로 차별했다. 반당분자 감투를 씌워 출당하는 일도 잦았다. 1967년 이후 주민등록사업때는 노동계급성, 당성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했고 월남자가족에 대한 처리가 더 나빠졌다고 한다.

김영주는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7년 무렵에는 사무실을 비우고 아예 평남 영원의 묘향산휴양소(약수터별장)에 가있는 일이 잦았다. 병치료차 구소련, 루마니아 등지로 나가기도 했다(해외요양기간은 1969년 12월부터 1970년 10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보니 당조직업무가 원만히 수행되지 못했다. 그의 병이 정신질환과 관련돼 업무수행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김창봉·허봉학사건 수습 뒤에는 1970년 11월의 노동당 5차대회를 위한 준비사업이 당면 과제였다. 조직지도부의 임무였지만 김영주의

해외요양 때문에 당대회 준비는 김일성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 밑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박수동과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정일이 실무를 처리했다. 1970년 말부터 빨치산그룹은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영주는 1970년 11월 5차당대회에서 당정치위원·비서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형편이 아니었다. 1972년 7월 당조직비서 자격으로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남북조절위원회 북측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집무를 할 수 없는 처지였다. 1974년 2월에 정무원 부총리로 임명된 뒤 해외 순방과 외국 사절단 접견 등의 활동에 이름을 비치다가 1975년 7월 7·4공동성명 발표 3주년 성명 발표를 끝으로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김영주가 20여년간의 정치공백을 깨고 당정치국 위원, 국가부주석으로 컴백한 것은 1993년 12월이다. 그 뒤 의례적인 행사 자리를 제외하고는 그의 활동은 나시 오리무중이다. 건강이 여전히 시원찮다는 반증이다.

과도기의 권력동향과 관련, 김영주의 위상과 역할론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는데(이를테면 권력획득 시나리오) 그의 조직적, 대중적 지지기반은 그다지 눈에 띌 만한 것이 아니다.

조직기반은 당조직지도부와 군대(인민무력부·총참모부·총정치국 및 일선 사단과 군단, 각 병종사령부 등), 보위안전기관(국가안전보위부·사회안전부)이 중요한데 이것 모두 김정

일이 장악하고 있다. 대중기반은 당선전선동부와 인전대조직(직맹·사노청·농근맹 등)의 장악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김영주의 영향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군부 혹은 권부에서 김영주 용립세력이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이 점에서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와 아들 김평일그룹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김영주의 정치국원 자리 유지는 '원로그룹의 일치된 김정일 지지'라는 상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남

김영남은 1925년 함북 명천에서 철도공무원의 자제로 태어나 이곳에서 보통학교를 나왔다. 주을중학교를 2년 다니다 중퇴하고 만주 용정의 대성중학교를 다닌 그는 해방 뒤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1949년에 모스크바종합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정규교육을 받은 외교테크노크랫이다.

1954년 초 전후복구건설기에 북한으로 돌아온 김영남은 곧바로 노동당 국제부에 배치되고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는 국제부 지도원, 과장을 거쳐 1960년에 부부장이 됐으며 1962년에 내각 외무성 부상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64년에 당국제부 부부장으로 롤백하였다. 그 뒤 국제부 제1부부장(1970년), 부장(1972년)을 거쳐 1975년에는 국제부문의 최고책임자인 국

제담당 비서로 발탁되는 등 최고위 외교책임자로 성장했다. 그러다가 1984년초에 당에서 정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국제부 제1부부장 시절인 1970년에 일찌감치 당중앙위원으로 올라섰고 1975년에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78년에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정치국 정위원으로 남아있다.

러시아어·영어·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외교통 김영남이 김일성의 신임을 얻게된 계기는 1956년 연안파를 제거한 8월 전원회의 자리였다. 연단에 나선 그는 예리한 논리로 연안파를 공격해 김일성그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했다고 한다. 그뒤 1967년 5월 박금철·이효순사건 때는 당국제부장 박용국이 박금철을 추종한 사실과 박용국의 개인비리를 폭로해 박금철그룹의 제거에 앞장섰다. 1976년에는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부주석 김동규(전 국제비서) 숙청에도 개입했다.

김영남은 김정일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당·국가외교를 총괄하는 자리를 유지해 왔다. 김영남은 북한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방외교를 당비서들인 김용순과 황장엽이나 외교부 부부장들에게 넘겨주면서 왕성하던 외교활동이 많이 줄었다.

김일성 사후 그의 외교활동에서 대표적인 예는 1995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비동맹

국가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및 반동회의 4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것과 5~6월에 노동당 대표단장 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평양에서는 1월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일행과 쿠바 공산당 정치국위원을 접견하고, 4월에 김일성 탄생기념 중앙보고회에서 기념보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외교활동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김일성의 장례식 행사에서 보고를 하거나 6월 19일 김정일의 당사업시작 31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는 등 정치적 비중이 높은 행사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

31주년 보고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을 충효일심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해 김정일 지지자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 또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일)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충신이 되고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는 상투적 주장도 되풀이했다. 김영남의 이같은 활동은 앞으로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현재의 이종욱·박성철 부주석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